

영암군, 한우사료 자급자족 선언

정보리 재배 면적 2,500ha 확대

축산농가 2010년 年 160억 절감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오는 2010년까지 한우 사료 자급자족을 선언했다.

영암군은 지난 2006년 135㏊에 불과하던 정보리 재배면적을 2007년 305㏊, 2008년에는 740㏊로 3년만에 5.5배 확대했다.

군은 오는 2010년까지 정보리 재배면적을 2천500㏊까지 확대하고 배합사료 주 원료인 옥수수 재배면적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한우사료 자급자족이 현실화되면 각 한우 사육 농가마다 연간 40%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부터 영암군역 1천133 한우사육농가(사육두수 3만 3천여두)의 연

간 사료값 396억원 중 5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2010년부터는 연간 160억원 이상의 사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군은 정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110㏊의 종자를 농가에 무상공급했으며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 1천㏊에 뿐만 아니라 정보리 종자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영암군 군서면 도감리에 27㏊ 5천만원을 투입, 면적 7천421㎡ 규모의 TMR(조사료가공사료)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공장이 완료되면 하루 150t의 사

료를 생산해 영암지역 전체 소 사육농가에 공급되며, 남은 분량은 인근 시·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늦가을에 파종했다가 다음해 모내기 전에 거둬들이는 정보리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고품질 유기농사료로 사용된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국내 한우 사육농가들이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축산 농가들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소득 창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료 안정화 대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강진군 종합운동장

38억 들여 리모델링

강진군이 선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나선다.

강진군은 38억원을 들여 본부석 사무실 개보수와 차광막 설치, 전광판 및 조명탑 케이블 설치, 방송설비 교체 작업을 벌인다. 특히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석 1천500여개를 신규 설치되며 운동장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 등 조경사업도 실시된다.

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장 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대나무공예경진대회

이영수씨 최우수상

담양군은 최근 제 27회 전국대나무공예경진대회 심의회를 열고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 이영수씨의 대나무 바둑판을 선정했다.

또 우수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에는 김길수씨의 사계절용 대자리,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에는 강창현·이세진(조선대 디자인학부)씨의 청죽(靑竹), 우수상에는 전현진(조선대 디자인학부)씨의 휴(休)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54종 165점이 출품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2008 대나무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상금으로는 일반인 부문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이며 대학생 부문은 최우수상 120만원, 우수상 80만원이 지급된다.

27일 황금박주생태관 진입도로에서 힘평

나비엑스포 대형 봉 서예 퍼포먼스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취지문을 대형 봉으로 쓰는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서예가 쌍산(雙山) 김동우씨는 자신의 키 만큼이나 큰 대형 봉으로 140m 길이의 광복천에 기로, 서로 각각 1m 크기의 글씨로 엑스포 취지문을 담겼다.

/힘평=박영진기자 pyj407@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보급

나주시, 1300여 농가 연 1억 5천만원 3년간 지원

나주시가 배 재배농가들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보급사업’을 실시했다.

나주시는 국비 지원사업인 신활력 사업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보급사업’을 포함시켜 올해부터 연간 1억 5천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배 재배농민들은 매년 꽃가루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 차원

에서 꽃가루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나주시는 나주배조합에 위탁해 지난 7일부터 관내 1천300여 농가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200kg을 보급했다.

인공 꽃가루 보급사업은 착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신경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배 재배농민들은 매년 꽃가루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 차원

에서 꽃가루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농가를 위해 과감한 농정정책을 펼친데 대해 친사를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나주시로부터 꽃가루를 지원 받은 농가들의 경우 착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인근 영암을 비롯해 천안·안성시 등 배 주산지 자치단체에서도 내년부터 꽃가루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5월 10일 해남 두륜산서 ‘땅끝 전국등산대회’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해남 두륜산에서 다음 달 10일 ‘제 1회 땅끝 전국등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흥사 경내 주차장을 출발해 일지암~북미륵암~두륜봉~표충사를 다니오는 가족코스(1시간 30분)와 대흥사~일지암~오심재~노승봉~가련봉~두륜봉~진불암~표충사를 오르는 건강코스(3시간)

간)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산행 보물찾기와 디카로 담는 두륜산, 등산 기행문 쓰기, 전통 낭도 춤,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 외에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주어진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제 4회 전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회장 장영복)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신안군 압해도 송공산 물양장에서 개최돼 광어 치어 방류를 비롯해 시·군별 특산물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완도군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관광객 이미지 개선…강력한 지도 단속



군은 위생업소의 가격안정과 깨끗한 시설,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해 모범업소에 시설 개선자금 지원,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바가지요금 균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편성, 바가지 요금이 빙을 불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식 군수는 “지역 모든 업소가 적정가격을 받고 격조높은 친절서비스를 실천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군이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완도군은 지난 24일 군민회관에서 김종식 군수, 정광록 경찰서장, 김두석 해경서장, 김동환 농협군지부장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위원회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가지 요금 없는 관광완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

제 4회 전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회장 장영복)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신안군 압해도 송공산 물양장에서 개최돼 광어 치어 방류를 비롯해 시·군별

특산물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장흥=김용기자 kykim@



527-3388
여·커플 해녀제 직원 구함

